

국어 기출해설 (B책형)

해설 - 김춘호 교수(종로공무원경찰학원)

문 1.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 ㉠이는 참으로 잘된 일이야.

○ 지금 사는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 재는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 마음에 든대.

○ 어르신, 제가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 ① ㉠: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② ㉡: 화자와 청자 모두 모르는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 화자는 모르지만 청자는 아는 내용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 ④ ㉢: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

정답 ①

유형 문법: 형태론 - 품사(대명사)

해설 ㉠의 ‘이’는 앞 문장인 ‘현주가 취직이 되었는데’를 의미하는 대명사이다.

오답해설 ② ㉡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다.

③ ㉢의 ‘저것’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이다.

④ ㉢의 ‘저’는 말하는 이와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관형사이다.

참고 지시대명사 분류

분류	근칭 (近稱)	중칭 (中稱)	원칭 (遠稱)	미지칭	부정칭
사물대명사	이, 이것	그, 그것	저, 저것	무엇, 어느 것, 어떤 것	아무 것
처소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어느 곳, 어디	아무데, 아무곳

문 2. 다음을 고려한 보고서 작성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주제: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목적: 북촌 한옥 마을, 이화 마을 등의 주거 지역에 관광객이 몰리면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② 대상 지역에 주소지를 둔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을 분석한다.
-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열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유형화한다.

정답 ②

유형 비문학 - 작문

해설 보고서의 주제는 ‘주거지의 관광 명소화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고, 목적은 ‘쾌적한 주거 환경이 위협받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지, 관광 업체의 경영 실태 및 매출 실적 분석은 주제,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외국의 유사한 정책 사례를 통해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전문가 자문 회의와 주민 토론회를 통해 개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④ 대상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

문 3. 밑줄 친 어휘 중 잘못 쓰인 것으로만 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혼자 낯선 이의 집에서 숙식을 ㉠ 붙인다는 것은 분명 힘에 ㉡ 부치는 일로 보였다. 오늘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 붙여 보았지만, 아무 대답 없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우표를 ㉣ 부치고 있을 뿐이었다. ㉤ 붙여 먹을 땅 한 평 없던 아버지일지라도 그 아이가 유일하게 정을 ㉥ 붙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정답 ②

유형 어문규정 - 한글맞춤법

해설 ㉠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는 의미로 ‘부치다’를 써야 한다.

㉢ ‘맞닿아 떨어지지 않게 하다’는 의미로 ‘붙이다’를 써야 한다.

㉤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는 의미로 ‘부치다’를 써야 한다.

참고 ※ 부치다

부치다01 「동사」

모자라거나 미치지 못하다.

부치다02 「동사」

[1]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방에게로 보내다.

[2]

「1」 어떤 문제를 다른 곳이나 다른 기회로 넘기어 맡기다.

「2」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아니하는 상태에 있게 하다.

「3」 원고를 인쇄에 넘기다.

「4」 마음이나 정 따위를 다른 것에 의지하여 대신 나타내다.

「5」 먹고 자는 일을 제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하다.

[3] 어떤 행사나 특별한 날에 즈음하여 어떤 의견을 나타내다. 주로 글의 제목이나 부제(副題)에 많이 쓰는 말이다.

부치다03 「동사」

논밭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다.

정답 ④

유형 비문학 - 독서(설명 방식)

해설 밑줄을 보면 ‘나한’은 개인 본위인 반면에, ‘보살’은 사회 본위임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부분의 주된 설명 방식은 둘 이상의 대상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대조’가 적절하다.

오답해설 ① 유추: 두 대상의 몇 가지 속성이 동일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그것들의 기타 속성도 동일하리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는 추론의 방식

② 묘사: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한 쪽의 그림을 그리듯이 언어로써 생생하게 그려 내는 진술 방식

③ 예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법

문 5. 다음 글에서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개인의 알 권리를 충족하거나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도덕적 응징이라는 미명하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범법 행위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법적 처벌이 어렵다면 도덕적으로 응징해서라도 죄를 물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요구가,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법 행위 수준의 과도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그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①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

③ 공유된 정보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 공유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

정답 ④

유형 비문학 - 독서(글쓴이의 주장)

해설 글쓴이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인격 훼손은 물론, 개인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를 공유할 때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을 훼손하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언급은 하고 있지만, 이는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보 유출로 공공의 이익이 훼손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은 지문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사건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개인 신상 정보부터 무분별

하게 유출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이는 글쓴이가 결론적으로 주장하는 바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6. 다음 글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 중 하나는 여러 건물들이 일정한 축이나 질서에 의해 배치되고, 그 중간 부분에 크고 작은 마당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결코 자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열린 건축 공간을 통해 정원처럼 즐기는 방식을 취한다. 그것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다.

한국 전통 건축물이 왜소하거나 초라해 보인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개 외형적인 크기와 넓이 그리고 장식적 요소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한국 전통 건축은 ‘겸손의 건축’이다.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자연을 침해하면서까지 건축물을 두드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전통 건축의 기본 철학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산과 들을 제압하는 거대한 건축물을 짓지 않으려고 했으며,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

- ① 한국의 전통 가옥은 방의 창문을 통해 자연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②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소유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면에서 일본 전통 건축과 다르다.
- ③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압도하는 건축을 추구하지 않은 것은 건축물을 자연의 일부로 여긴 까닭이다.
- ④ 한국 전통 건축의 조형미를 직선보다 곡선에서 찾은 것은 한국 전통 건축의 철학을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정답 ④

유형 비문학 - 독서(내용 일치)

해설 지문의 끝을 보면 ‘그 형태 또한 인위적인 직선을 배제하고 자연계의 곡선을 따르는 것을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④의 설명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1문단의 ‘마당으로부터의 시선이 마루를 거쳐 방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호를 통해 저 멀리의 들과 강과 산으로 이어진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자연을 정복하려는 중국 전통 건축이나, 자연을 소유하려는 일본 전통 건축의 특징과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건축물도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인간이 잠시 그 품에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 옳다는 철학도 한국 전통 건축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 7. ‘효녀 지은’의 행위를 나타내는 사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삼국사기』 열전 ‘효녀 지은’에서 -

유형 어문 규정 - 띄어쓰기

해설 스무 살남짓(X) → 스무 살 남짓(O): ‘남짓’은 크기, 수효, 부피 따위가 어느 한도에 차고 조금 남는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 말과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오답해설 ① ‘-쫘’은 알맞은 한도, 그만큼가량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② ‘-어치’는 그 값에 해당하는 분량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④ ‘-경’은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앞 말에 붙여 써야 한다.

문 10. (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公無渡河
公竟渡河
墮河而死
當奈公何

- 백수광부의 처, 「공무도하가」 -

(나)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내여 아즐가 빅 내여 노흔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네 가시 아즐가 네 가시 림난디 몰라서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넬 빅예 아즐가 넬 빅예 연즌다 샤공아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대동강(大同江) 아즐가 대동강(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빅 타들면 아즐가 빅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렁디리

- 작자 미상, 「서경별곡」에서 -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동행을,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선택한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임과 나의 재회를 돕는 매개로 설정되었다.
 ③ (가), (나)의 화자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상대방이 보이는 반응이 회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정답 ③

유형 문학 - 고전시가(고대가요, 고려가요)

해설 (가)의 화자는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을까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배를 타고 임이 자신의 곁을 떠날 것을 염려하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 벌어질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가)의 화자가 임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부분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고, (나)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고 있다.

② (가)의 ‘河’와 (나)의 ‘강’은 모두 이별의 장소가 되고 있다.

④ ‘회극’이란 웃음을 주조로 하여 인간과 사회의 문제점을 경쾌하고 흥미 있게 다룬 연극이나 극 형식을 의미하고, ‘회극적’이란 이러한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웃음과는 거리가 멀다. 참고

(가) 공무도하가

公無渡河(공무도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公竟渡河(공경도하) 임이 그예 물을 건너시네,
墮河而死(타하이사)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當奈公何(당내공하) 임이여, 이 일을 어찌할꼬.

- 갈래 : 4인 4구의 한역 시가, 서정시
- 제재 : 임의 죽음
- 주제 : 임과의 사별(死別)을 슬퍼함
- 특징 : ①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출되어 있음, ② ‘물’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
- 의의 : 문헌상 가장 오래된 서정시이며,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인 서정시로 넘어가는 시기의 가요임
- 감상 : 이 작품은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정 시가로 알려져 있으며, 집단적 서사시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단계의 가요로도 그 의의가 있다. 노래 가사는 <해동가요(海東歌謠)>에 한역되어 전하며, 배경 설화와 함께 보아야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이별을 당한 여인이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모습에서 기다림과 한(恨), 체념 등의 정서를 확인할 수 있다. 주제는 임을 여원 슬픔이며, 비유적인 표현 없이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서경별곡

대동강이 넓은 줄을 몰라서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아내가 음탕한 짓을 하는 줄도 모르고
떠나는 배에 내 입을 태웠느냐? 사공아.

(나의 입은)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를 타고 가면 꺾을 것입니다.

- 갈래 : 고려 가요
- 제재 : 임과의 이별
- 주제 : 이별의 정한(情恨)
- 출전 : <악장가사(樂章歌詞)>
- 특징 : 반복법, 설의법, 비유법을 통해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의의 : <청산별곡>과 함께 문학적 창작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됨
- 감상 : 서경과 대동강변을 배경으로 사랑하는 임과의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 여성 화자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자신의 생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하여 임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애원하며 호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만 건너면 다른 여인을 사귀지나 않을까 여성으로서의 불안과 질투의 감정 또한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별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마음을 엉뚱하게도 사공에게 퍼붓는 내용에서는 골계미까지 느껴져 이 노래가 얼마나 당시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 11. ‘곰치’의 심리로 미루어 ㉠ ~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부 ‘곰치’가 선주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모처럼 찾아온 만선(滿船)의 기회를 놓칠까 싶어 갈등하는 상황이다.]	
임제순: (발끈해서) 아니면 으짖 참이었? 이자를 생각해 봐! 놀랄 것이 못이여?	
연 철: (비꼬는 투로) 놀랄 것 하나도 없지라우! 이렇게 될 줄 뻔히 알었지라우! (불같은 한숨)	

임제순: 못이라고? 저놈이 어따 대고 비양질이여?
 곰 치: (㉠) 알았음녀..... (연철에게) 아무 소리 말어! 다들 입을 봉해!
 성 삼: 곰치! 입을 봉할 때가 따로 있어! (오기스런 안간힘)
 곰 치: (㉡) 시끄러웠!
 임제순: 곰치!
 곰 치: (㉢) 말씀하시게라우.....
 임제순: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덕: (필쩍 뛰며) 왔따! 무슨 말씀이시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어라우? 예에?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앓는 사람이여!
 곰 치: (㉣)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 천승세, 「만선」에서 -

- ① ㉠: 체념 조로
 ② ㉡: 비아냥거리는 투로
 ③ ㉢: 지친 듯
 ④ ㉣: 애걸 조로

정답 ②

유형 문학 - 현대 희곡

해설 ‘곰치’는 ‘임제순’에게 진 빚 때문에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봐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언성을 높이는 ‘연철’이나 ‘성삼’이 ‘임제순’을 거슬리게 할까 봐 그들이 큰소리를 내면 주의를 시키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의 ‘비아냥거리는 투로’는 ㉡에 들어갈 지시문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① ‘곰치’는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곰치’는 ‘임제순’의 말에 큰 소리를 칠 수 없기에 ‘임제순’에게 ‘체념 조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곰치’는 ‘임제순’과 ‘연철, 성삼’의 사이에서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화를 내는 ‘연철과 성삼’을 주의시킨다. 따라서 ‘임제순’이 ‘곰치!’라 부르는 것에 ‘㉢지친 듯’ 대답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곰치’는 만선의 기회를 놓칠까봐 계속 ‘임제순’의 눈치를 보고 있다. 따라서 배를 묶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임제순’에게 ‘곰치’가 배만은 안된다고 ‘애걸 조로’ 말하는 게 적절하다.

참고 천승세의 <만선>

- 갈래 : 희극, 비극, 사실극
- 주제 : 한 어부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자연, 환경과의 대결 의지
- 특징 : ①사투리와 비속어를 사용하여 사실감이 느껴짐 , ②인물의 성격이 강하고 뚜렷하며, 집념과 갈등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묘사됨
- 감상 : 이 희곡은 어부 곰치의 만선에 대한 집념과 그로 인한 가족의 파멸을 그려 낸 작품이다. 만선에만 집착하는 곰치와 뱃일로 인해 자식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구포덕 간의 갈등, 그리고 선주(船主)로서 곰치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를 독촉하는 임제순과 배가 없는 사회적 약자인 곰치 사이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이 뒤얹혀 희곡의 장르적 특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물들의 대화에 쓰인 사투리나 비속어는 실제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며, 대사 또한 인물의 성격과 심리 등을 실감나게 드러내 준다. 곰치와 구포덕의 갈등 이전에 곰치가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임제순과의 갈등을 파악할 때, 이 작품이 비판하고자

하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문 12.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언어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한 언어 정책이 (㉠)되었다. 러시아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당시 러시아 사회는 칭기즈 칸의 침략 후 문장어와 방언 사이의 (㉡)가 컸다. 표트르 대제는 불가리아 문장어를 버리고 모스크바어를 (㉢)으로 한 러시아어 표준어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했다. 이때부터 푸시킨을 비롯한 국민적 작가에 의해 러시아의 문예어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서양에서 봉건제가 붕괴되고 민주 의식이 (㉣)되면서 표준어가 결정되고 국민 문예가 성립하는 과정을 거쳤다. 한 나라의 표준어 형성, 나아가 국어의 통합은 이렇게 문예 작품의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 | ㉠ | ㉡ | ㉢ | ㉣ |
|------|----|----|----|
| ① 시행 | 격차 | 기반 | 고양 |
| ② 시행 | 편차 | 기반 | 지양 |
| ③ 중단 | 격차 | 방식 | 지양 |
| ④ 중단 | 편차 | 방식 | 고양 |

정답 ①

유형 비문학 - 독서(어휘)

해설 ㉠ 뒤 문장을 보면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표준어 정책을 실시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에는 '시행'이 들어가야 한다. ㉡에는 문맥상 차이를 의미하는 '격차'가 적절하다. ㉢을 보면 모스크바어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에는 '기반'이 적절하다. 마지막으로 ㉣의 경우 정신이나 기분 따위를 북돋워서 높인다는 의미의 '고양'이 적절하다.

문 13. 다음은 신문 기사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별 헤는 밤

㉡ - 울산과 부산서 11.12일 별 축제 열려 -

㉢ 11일과 12일 저녁 울산과 부산에서 가을밤 별자리를 관찰할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펼쳐진다.

㉣ 울산광역시와 한국천문연구원은 11일 오후 5시부터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 울산전파천문대에서 '울산전파천문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별 축제'를 연다. 이 축제는 울산광역시 생활과학교실과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가 주관해 2010년부터 해마다 여는, 청소년을 위한 과학 문화 축제이다. ... (하략)

- ○○신문, 20○○. ○○. ○○. -

—<보 기>—

신문 기사에서 ‘전문’은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 부분으로, 대체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기사 내용의 뼈대를 제공한다. 이는 본문을 요약하는 전문, 배경을 설명하는 전문, 여론을 환기하는 전문, 결과를 제시하는 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 기사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전문이다.
- ② ㉡: 사건의 결과와 함께 원인을 제시한다.
- ③ ㉢: 육하원칙의 몇몇 요소로 기사의 요지를 제시한다.
- ④ ㉣: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전문에 해당한다.

정답 ③

유형 비문학 - 독서(신문 기사)

해설 ㉢의 경우 육하원칙 중 ‘11일과 12일 저녁(언제), 울산과 부산(어디서), 축제를(무엇을)’ 등을 활용하여 기사의 요지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은 전문이 아니라, 표제에 해당한다.

② ㉡은 부제로 구체적인 축제를 말하고 있을 뿐, 사건의 결과와 원인을 제시되지 않았다.

④ ㉣은 전문이 아니라 본문으로 울산의 별 축제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문 14.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뻔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 이성부, 「봄」 —

- ① 특정한 시어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단정적 어조로, 기대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가 시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 ④ 특정 대상을 인격화하여 대상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③

유형 문학 - 현대시

해설 화자는 시적 대상인 '봄'이 더디게라도 마침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절망적인 상황을 단언하는 화자의 태도를 옳지 않다.

오답해설 ① '온다'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② '온다'라는 단정적 어조를 통해 기대하는 대상인 '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봄'은 의인화, 인격화하여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참고 이성부의 <봄>

- 갈래 : 자유시, 서정시
- 성격 : 상징적, 희망적
- 제재 : 봄
- 주제 : 다가오게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
- 특징 : ① 확고한 신념에 찬 어조를 띤.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그려 냄.
- 감상: '봄'은 시련과 고통의 계절인 '겨울'을 이겨 내고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는 계절이며,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인 자연의 섭리에 따라 반드시 도래한다는 당위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시인은 '봄'을 의인화하여 친근감을 드러내고, 늦지만 반드시 올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봄'의 속성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암울한 현실을 이겨 내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시대(자유와 민주의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문 15. 다음 글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굵이들 속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 어느 세기에는 종교적 믿음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도 했고, 어느 때는 이성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또 어느 시점에서는 전 인류가 기계 문명을 근간으로 한 산업화를 지향하기도 했다. 그리고 21 세기가 되었다.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

과학 기술의 진보와 이에 발맞춘 눈부신 문명의 진전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우선하였다. 과연 인간이 욕망하지 않고 상상하지 않았다면 이 문명 세계의 많은 것들을 창조하고 혁신할 수 있었을까? 하늘을 날고 싶어 하는 욕망이 없었다면 비행기는 발명되지 못했을 것이며, 좀 더 빠른 이동 수단을 원하지 않았다면 자동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껏 상상력은 인류 문명을 가동시켜 온 원동력이었으며 현재 또한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신과학들은 이러한 상상력의 위상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사람들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공상 수준에 그쳤던 일들이 실로 구현되는 상황이 펼쳐지곤 한다. 3D, 아바타, 사이보그, 가상현실, 인공 생명, 유전 공학, 나노 공학 등 21세기 최첨단 과학 기술에 힘입어 상상력의 지평이 넓어졌다.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

술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 ① 현재의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불변의 절대적 가치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② 인류 역사의 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끼친 영향이 크다.
- ③ 인류 역사의 변화 중에도 인간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다.
- ④ 21세기에 접어들어 과학 기술과 상상력의 위상 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정답 ③

유형 비문학 - 독서(추론)

해설 1문단에 '이 세기는 첨단 과학과 정보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달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진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변화된 모습이 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는 내용을 통해 상상력을 바탕으로 실현된 세계의 모습이 변함이 없다는 건 잘못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해설 ① 1문단의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해 왔다. 그 변화의 굽이들 속 에서 사람들의 세계관이나 가치관 또한 다양하게 바뀌었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의 배경에 는 늘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이 가로놓여 있었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과거 시대들이 무엇인가를 상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 기술 을 개발하는 시간들이었다면, 21세기는 상상하는 것을 곧 이루어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를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문 16. ㉠~㉣의 한자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태어날 때 자기의 얼굴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얼굴은 부모님한테서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얼굴은 재주나 체질과 마찬가지로 ㉠ 운명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누구나 맑고 아름다운 얼굴을 갖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지 못하는 얼굴을 바라 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톨스토이의 ㉡ 자서전적 작품을 읽어 보면, 젊었을 때 자기의 코가 넓적하고 보기 흉한 것을 무척 비 관해서 ㉢ 염세적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얼굴의 근본 바탕 은 세상에 태어날 때 운명적으로 결정되지만, ㉣ 성실한 노력에 따 라서는 내면을 드러내는 인상이 바뀔 수 있다.

- | ㉠ | ㉡ | ㉢ | ㉣ |
|------|-----|-----|----|
| ① 殞命 | 自書傳 | 厭世的 | 成實 |
| ② 運命 | 自書傳 | 鹽稅的 | 成實 |
| ③ 殞命 | 自敘傳 | 鹽稅的 | 誠實 |
| ④ 運命 | 自敘傳 | 厭世的 | 誠實 |

정답 ④

유형 어휘 - 한자어

해설 운명(運命: 운전할 운, 목숨 명):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

자서전(自敘傳: 스스로 자, 줄 서, 전할 전): 작자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스스로 짓거나, 남에게 구술하여

쓰게 한 전기.

염세적(厭世的: 싫을 염, 세상 세, 목적 적):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

성실(誠實: 정성 성, 열매 실): 정성스럽고 참됨

cf) 운명(殞命: 죽을 운, 목숨 명): 사람의 목숨이 끊어짐

염세(鹽稅: 소금 염, 세금 세): 예전에, 소금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던 세금.

성실(成實: 이룰 성, 열매 실): 성숙하여 열매를 이룸

문 17.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처럼 동리자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했는데 실은 슬하의 다섯 아들이 저마다 성(姓)을 달리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다섯 놈의 아들이 서로 이르기를, “강 건너마을에서 닭이 울고 강 저편 하늘에 셋별이 반짝이는데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말소리는 어찌도 그리 북곽 선생의 목청을 닮았을까.” 하고, 다섯 놈이 차례로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동리자가 북곽 선생에게, “오랫동안 선생님의 덕을 사모했사운데 오늘 밤은 선생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자 하옵니다.” 라고 간청하매, 북곽 선생은 옷깃을 바로잡고 점잖게 앉아서 시(詩)를 읊는 것이 아닌가.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 있고 / 반딧불이 흐르는데 잠 못 이루어 / 저기 저 가마솥 세발솥은 / 무엇을 본떠서 만들었나.’ 흥야(興也)라.” 다섯 놈들이 서로 소곤대기를 “북곽 선생과 같은 점잖은 어른이 과부의 방에 들어올 리가 있겠나. 우리 고을의 성문이 무너진 데에 여우가 사는 굴이 있다더라. 여우란 놈은 천 년을 묵으면 사람 모양으로 둔갑할 수가 있다더라. 저건 틀림없이 그 여우란 놈이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하고 함께 의논했다.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 있고, 여우의 신을 신으면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 있고,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남에게 이쁘게 보일 수 있다더라. 우리 저 여우를 때려잡아서 나누어 갓도록 하자.” 다섯 놈들이 방을 둘러싸고 우루루 쳐들어갔다. 북곽 선생은 크게 당황하여 도망쳤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서 모가지를 두 다리 사이로 들이박고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문을 나가서 내닫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 속에 빠져 버렸다. 그 구덩이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간신히 기어올라 머리를 들고 바라보니 뜻밖에 범이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범은 북곽 선생을 보고 오만상을 찌푸리고 구역질을 하며 코를 싸쥐고 외면을 했다. “어허, 유자(儒者)여! 더럽다.”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고 범 앞으로 기어가서 세 번 절하고 꿇어 앉아 우러러 아뢰다.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지요. 대인(大人)은 그 변화를 본받고, 제왕(帝王)은 그 걸음을 배우며, 자식 된 자는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며, 거룩하신 이름은 신령스런 용(龍)의 짝이 되는지라, 풍운의 조화를 부리시매 하토(下土)의 천신(賤臣)은 감히 아랫바람에 서옵나이다.”

범은 북곽 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 듣건대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죄다 나에게 덮어씌우더니, 이제 사정이 급해지자 면전에서 아침을 떠니 누가 끝이들겠느냐?”

— 박지원, 「호질」에서 —

- ① 자연의 묘사를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시를 통해 인물의 속셈을 던지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물을 의인화하여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 ④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대상을 비판하고 있다.

정답 ①

유형 문학 - 고전소설

해설 자연을 묘사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지 않다.

오답해설 ② 북곽 선생은 동리자에게 시를 읊어주며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범’을 의인화하여 북곽 선생으로 대표되는 유학자의 이중성을 들추고 있다.

④ ‘유(儒)는 유(諛)라 하더니’를 보면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북곽 선생을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박지원의 <호질>

- 갈래: 단편 소설, 한문 소설, 풍자 소설
- 성격: 풍자적, 우화적, 비판적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제재: 지배 계층의 위선과 가식
- 주제: 당시 양반층의 허위의식과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작가를 대변하는 범을 의인화하여 당시의 지배층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② 비판의 대상이 유자(儒者)인 북곽 선생에서 위선적인 인간 모두로 확대됨.

• 감상: 조선 후기의 소설가이자 실학자인 박지원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로, 양반 계급의 위선을 비판한 작품이다. 실학 사상을 바탕으로 하며, 타락한 양반의 모습을 희화화하는 풍자와 해학성을 통한 비판이 돋보인다. ‘호질’은 ‘호랑이가 질책한다’는 뜻으로, 이 글에서 범(호랑이)은 유학자의 위선을 비판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문 18. 다음 중 의미 중복이 없는 문장은?

- ① 투고한 원고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 ②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 ③ 요즈음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④ 버스 안에 탄 승객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분들이다.

정답 ③

유형 문법 - 의미론(의미의 중복)

해설 ① ‘투고하다’는 ‘의뢰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어 달라고 원고를 써서 보내다.’라는 의미로 단어 안에 ‘원고’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원고’라는 뜻이 중복되었다.

③ ‘도보’는 ‘탈것을 타지 않고 걸어간다.’라는 의미로 ‘걷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걷다’라는 뜻이 중복되었다.

④ ‘자매결연’은 ‘자매의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로 ‘맺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맺다’라는 뜻이 중복되었다. 또한 ‘승객’은 ‘차, 배, 비행기 따위의 탈것을 타는 손님.’라는 의미로 ‘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타다’라는 뜻이 중복되었다.

문 19. 다음은 안중근 의사의 재판 기록 중 최후 진술의 일부분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 모두들 이등(伊藤)의 시정 방침은 완전무결한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이다.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있으나, 이등이 한국에서 주재하며 대한 정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는 자세히 말할 시간이 없으므로 그 줄거리만을 말하고자 한다. ... (중략) ... 이와 같이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일본인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한국인으로서 자기의 친척과 지기(知己)의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어찌 증오해 마지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내가 이등을 죽인 것도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 한 것이지 결코 자객으로서 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친선을 저해하고 동양의 평화를 어지럽힌 장본인은 바로 이등이므로,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

- ① 안중근 의사는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 ② 안중근 의사는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 ③ 안중근 의사는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 동양 평화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정답 ④

유형 비문학 - 독서(글의 이해)

해설 ‘오늘 내가 말한 여러 계급의 인사들에게 다시 물어 봐도 모두 동양의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줄 안다. 그와 동시에 간신 이등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그 정도를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통해 안중근 의사는 여러 일본인의 의견을 언급하면서 이등을 제거한 행위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다

- 오답해설 ① ‘앞에서 검찰관의 논고와 변호사의 변론을 들으니’를 통해 ‘검찰관의 논고를 듣기도 전에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② ‘나는 한국의 의병 중장의 자격으로서 그를 제거한 것이다’를 통해 ‘이등을 제거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등의 시정 방침은 결코 완비된 것이 아닐진대 어찌 오해라고 할 수 있겠는가’를 통해 ‘이등의 시정 방침이 완벽하지만’은 옳지 않은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문 20.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모어(母語)를 전달하지 않고자 하는 행위를 ‘언어 자살(language suicide)’이라고 한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멕시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토토낙어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고 지역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데도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구에 의하면 언어 자살은 ‘정체성 상실, 사회 붕괴, 세대 간 문화적 연속성의 결여’ 등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원인이자 결과이자 배경이다.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는 셈이다.

- ①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 지배 전략 가운데 언어 말살 정책은 언어 자살 현상의 대표적 사례이다.
- ②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다.
- ③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정답 ①

유형 비문학 - 독서(글의 이해)

해설 언어 자살은 명백한 외부의 강압이 없으며 비교적 단기간에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서구 열강들의 언어 말살 정책은 식민지 지배 전략에 해당하므로 언어 자살 현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해설 ② 이 지역 사람들은 모어 대신 스페인어를 사용했음을 통해 모어를 계승하려는 언중의 의지가 언어 자살 현상의 발생 가능성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언어 교체 현상을 멕시코 정부가 부추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통해서 멕시코 정부의 공식적인 언어 정책이 특정 지역의 언어 교체 현상을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나는 부모님들처럼 이렇게 살지는 않겠어.’라는 집단적 자각이 한 세대로 하여금 단체로 모어 사용을 그만두게 할 수도 있음을 통해 부모 세대와 다르게 살겠다는 자식 세대의 집단적 자각은 언어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